



스위스 기차 전문가의 추천템.

스위스 트래블 패스 한 장으로 간편하게

스위스의 화려한 겨울 풍경을 선사하는 파노라마 기차와 유람선

스위스 기차 전문가의 큐레이팅

스위스 트래블 패스 한 장이면 전 여정이 무료 혹은 반값

스위스의 기차, 유람선, 버스 전체를 포괄하는 스위스 트래블 시스템(Swiss Travel System)에서는 전 세계 여행자들을 위해 스위스 트래블 패스(Swiss Travel Pass)를 판매한다. 스위스 기차 전문가인 이들이 스위스에서 제일 아름답기로 꼽히는 기차, 버스, 유람선 여정을 큐레이팅 했다. 스위스 트래블 패스 한 장으로 스위스의 겨울 풍경을 마음에 담백 담아볼 여정을 추천한다.

1. 베르니나 특급(Bernina Express)

특급 파노라마 열차로, 스위스 북부와 남부를 연결한다. 레티쉐반(Rhaetian Railway)이 운행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철로를 따라 빙하에서 시작해 야자수까지 그 여정을 이어간다. 알프스를 건너는 멋진 방법 중 하나다. 그 과정에서 65m 높이의 란트바서 고가교(Landwasser Viaduct)도 지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철로의 시그니처 구조물 여럿을 보여준다. 쿠어(Chur)에서 이탈리아 티라노(Tirano)로 가는 길에 55 개의 터널과 196 개가 넘는 다리를 통과한다. 베르니나 단층 지괴, 모테라취 빙하(Morteratsch glacier), 레이 피첸(Lej Pitschen), 레이 네어(Lej Nair) 및 라고 비앙코(Lago Bianco)의 세 호수, 알프 그뤼름(Alp Grüm) 및 부르시오 나선형 철교(Brusio Circular Viaduct)의 전경과 함께 몬테벨로(Montebello) 곡선과 같은 놀라운 풍경을 체험할 수 있다.

구간 쿠어(Chur) / 생모리츠(St. Moritz) - 티라노(Tirano: 이탈리아) 혹은 역방향
 거리 144 km
 소요시간 4 시간 - 4 시간 30 분
 요금 스위스 트래블 패스로 이용할 수 있으나, 예약비가 발생한다. 예약은 필수다.

2. 빙하특급(Glacier Express)

‘세상에서 제일 느린 특급 열차’라는 별명을 가진 빙하특급 여정은 약 8 시간 동안 이어지는데, 91 개의 터널과 291 여 개의 다리를 지나며 알프스를 통과한다. 빙하특급은 엔가딘(Engadin) 계곡에서 곧바로 마테호른(Matterhorn)까지 감각적인 여정을 이어간다. 화려한 생모리츠(St. Moritz)부터 세련된 체르마트(Zermatt)까지 여유로운 속도로 달리며 승객들에게 아름다운 풍광과 감탄스러운 기술적 성취를 펼쳐낸다. 높은 파노라마 창문이 설치된 빙하 특급은 한 치의 가림 없는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빙하특급에는 1 등석 보다 높은 엑셀런스 클래스(Excellence Class)가 있다. 창가 좌석과 익스클루시브 바, 엔터테인먼트, 컨시어지 서비스, 퍼스널 트래블 가이드가 준비된 빙하 특급 엑셀런스 클래스는 한 차원 높은 기차 여행의 수준을 제시한다. 차창 밖으로 절경의 파노라마가 지나가는 동안 승객들은 샴페인과 아미즈 부쉬로 시작해 고급스러운 7 코스 식사를 와인과 함께 즐길 수 있다.

구간 체르마트 - 생모리츠 혹은 역방향
 거리 291 km
 소요시간 8 시간 3 분
 요금 스위스 트래블 패스로 이용할 수 있으나, 예약비가 발생한다. 예약은 필수다.
 3 코스 식사도 함께 예약할 수 있다.



3. 골든패스 익스프레스(GoldenPass Express)

골든패스 익스프레스(GoldenPass Express)가 인터라켄(Interlaken)부터 몽트뢰(Montreux)까지 이어지는 여정을 재정의한다. 철로의 규격이 달라지는 까닭에 원래는 중간에서 한 번 환승을 해야만 했던 구간이다. 혁신적인 기술을 접목해 2022년 12월부터 직행 노선을 운행하게 됐다. 골든패스 익스프레스 여정은 마치 스위스 전국 일주 같다. 그림 같은 인터라켄에서 출발한 여정은 그슈타트(Gstaad), 샤토데(Château-d'Oex), 몽보봉(Montbovon)을 지나 여정의 목적지인 몽트뢰에서 끝난다. 물론, 몽트뢰에서 여정을 시작할 수도 있다. 신규 운행 초기에 골든패스 익스프레스는 1일 1회만 운행된다. 2023년 6월부로, 신규 기차가 몽트뢰와 인터라켄을 1일 4회 운행하게 된다.

구간	인터라켄(Interlaken) - 몽트뢰(Montreux) 혹은 역방향
거리	115.34 km
소요시간	3시간 15분
요금	스위스 트래블 패스로 이용할 수 있다. 제한된 좌석 수로 인해, “프레스티지” 석 예약은 필수(예약비 발생)이며, 1 등석 및 2 등석 예약도 강력히 권장된다.

4. 루체른-인터라켄 익스프레스(Luzern-Interlaken Express)

루체른과 인터라켄. 스위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두 관광지다. 이 두 관광지를 연결하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루체른-인터라켄 익스프레스다. 루체른-인터라켄 익스프레스는 도시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의 여정을 훌륭한 체험으로 변모시켜 준다. 약 2시간에 걸친 여정 동안 다양한 강과 폭포에서 흘러나와 형성된 다섯 개의 크리스털처럼 맑은 산정 호수를 지난다. 호반과 주변으로 솟아오른 산봉우리의 가파른 절벽은 독특한 촬영 오브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한다. 브뤼니그 고개(Brünic Pass)로 향하는 가파르고 구불대는 오르막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 기차는 경사도를 극복하기 위해 톱니바퀴 열차로 바뀐다. 루체른-인터라켄 익스프레스와 인터라켄과 몽트뢰(Montreux)를 연결하는 절경의 골든패스 익스프레스를 조합하면 근사한 파노라마 여정을 즐길 수 있다.

구간	루체른 - 인터라켄 혹은 역방향
거리	98 km
소요시간	1시간 50분
요금	스위스 트래블 패스로 이용할 수 있다. 예약이 필수는 아니다.

5. 루체른 호수 유람선

평화로운 만, 드라마틱 하고 피오르를 연상시키는 험준한 능선, 질푸르고 맑디맑은 물, 그리고 그 뒤로 펼쳐지는 눈 덮인 산봉우리. 중부 스위스로의 여행에서 루체른 호수 위를 가로지르는 보트 크루즈를 빼놓을 수 없다. 현대적인 디아망(MS Diamant) 선박에서의 런치 크루즈는 꼭 한 번쯤은 경험해 봐야 할 여행 아이템이다. 유람선을 타고 중부 스위스 알프스를 물길로 탐험할 수 있다. 루체른에서 비츠나우(Vitznau)까지 보트로 이동한 후, 여기서 톱니바퀴 열차로 갈아타고 리기(Rigi) 정상으로 향하는 방법도 있다. 잠시 후면 위에서 내려다본 루체른 호수 전망을 만끽할 수 있다.

구간	유람선 코스에 따라 다양하다
요금	기본적인 탑승료는 스위스 트래블 패스로 이용할 수 있다.

6. 고르너그라트(Gornergrat)



유럽에서 가장 높은 개방형 톱니바퀴 열차로, 체르마트(Zermatt)에서 24 분 간격으로 출발한다. 햇살이 풍부해 계절에 관계없이 1 년 내내 갈 수 있는 해발 3,089m 의 고르너그라트 전망대까지 운행한다. 29 개 이상의 4,000m 급 거대 봉우리에 둘러싸여 있는데, 웅장한 마테호른과 뒤프르슈피체(Dufourspitze) 뿐만 아니라, 알프스에서 세 번째로 긴 빙하, 고르너그라트가 가슴 벅찬 풍경을 선사해 준다. 겨울이면 로텐보덴(Rotenboden)에서 레펠베르크(Riffelberg)까지 이어지는 썰매 코스가 무척 아름답다. 그뿐만 아니라, 햇살 가득한 스키장, 어린이 전용 스키 파크도 즐겁다. 겨울 하이킹 트레일에서 눈싸움은 어린이나 어른 모두에게 즐거운 추억이 되어준다.

구간	체르마트 – 고르너그라트
고도	해발 3,089m
소요시간	상하행 약 35 분씩 소요
요금	스위스 트래블 패스 소지 시,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7. 융프라우요흐(Jungfraujoch)

유럽의 지붕인 융프라우요흐에 오르는 것은 스위스 여행의 정점을 찍는 것을 의미한다. 융프라우 철도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스위스 알프스 융프라우-알레취(Jungfrau-Aletsch)”의 심장부이자 유럽에서 가장 높은 해발 3,454m 에 있는 역까지 100 년이 넘는 동안 운행해왔다. 톱니바퀴 열차는 일 년 내내 클라인 사이덱(Kleine Scheidegg)에서 융프라우요흐까지 터널을 통과해 가파른 길을 따라 산을 오른다. 아이거글레처(Eigergletscher) 역에서 이어지는 터널은 길이 7km 로, 1896 년부터 1912 년에 걸쳐 지어졌다. 터널 내는 역이 하나 있으며, 이 역에서는 안쪽에서 아이거(Eiger) 북벽으로 난 창을 통해 빙하의 장관을 볼 수 있다. 이후 정상에 도착하면 알레취(Aletsch) 빙하의 “스핑크스(Sphinx)”와 “고원(Plateau)“, 혹은 “얼음 궁전(Ice Palace)”에 올라 얼음과 눈, 그리고 바위로 이루어진 알프스 고원의 놀라운 세상을 만나게 된다. 2020 년 12 월, “아이거 익스프레스(Eiger Express)”가 개통되며 융프라우 철도의 V-케이블 웨이 프로젝트가 완성되었고, 이로써 인터라켄(Interlaken)부터 융프라우요흐까지의 소요시간이 1 시간 30 분으로 단축되었다. 그린델발트(Grindelwald)에 있는 터미널에서 3S 케이블카를 타면 단 15 분 만에 직행으로 아이거글레처 역에 올라갈 수 있다. 정상에 올라 파노라마와 모험의 세계를 더욱 여유롭게 즐길 수 있게 되었다.

구간	그린델발트/라우터브루넨 – 융프라우요흐
고도	해발 3,454m
소요시간	기차만 이용 시 2 시간 10 분, 케이블카 이용 시 1 시간 30 분
요금	스위스 트래블 패스 소지 시,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8. 리기(Rigi)

절경의 360 도 파노라마 뷰와 함께 리기는 계절에 상관없이 최고의 산악 체험을 선사해 준다. 골드라우(Goldau)와 비츠나우(Vitznau)에서 출발하는 톱니바퀴 열차와 벅기스(Weggis)에서 출발하는 케이블카는 다양한 왕복 여정을 꾸릴 수 있게 해준다. 루체른 호수 유람선과 함께 조합할 수도 있다. 1871 년부터 운행한 유럽 최초의 산악 열차로, 비츠나우에서 웅장한 산 정상까지 편안하게 승객을 수송해 왔다. 톱니바퀴 열차로 해발고도 약 1,800m 위까지 30 분간 오르는 동안 호수 풍경 너머로 펼쳐지는 화려한 파노라마를 즐길 수 있다. 2022 년 봄부터 역사 깊은 기차가 신식 객차와 연결됐다. 원래의 기차는 산을 내려갈 때 생성되는 제동 에너지를 객차 난방에 활용했는데, 새 기차는 이 전력을 전기로 공급해 오르막 여정에 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리기 철도는 지속가능성을 향한 큰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유럽 최초의 유서 깊은 산악 열차와 현대식 기차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리기에서의 독특한 철도 모형은 세상에서 유일한 종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간 비츠나우/아트 골다우 - 리기 쿨름
 고도 해발 1,798m
 소요시간 30-40 분
 요금 스위스 트래블 패스 소지 시, 전 구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9. 쉴트호른(Schilthorn)

2,970m 에 있는 쉴트호른은 아이거(Eiger), 뮌히(Mönch), 융프라우(Jungfrau)가 포함된 일명 “스위스 스카이라인(Swiss skyline)”이라 불리는 360 도의 파노라마 전망과 회전 레스토랑 피츠 글로리아(Piz Gloria)의 맛있는 요리로 여행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1967 년부터 라우터브룬넨(Lauterbrunnen) 계곡의 슈테헬베르크(Stechelberg)부터 산 정상까지 공중 케이블카가 운행되고 있다. 방문객들은 “본드 월드(Bond World) 007” 인터랙티브 어드벤처 전시를 관람하거나 새로 꾸며진 “007 명예의 거리(Walk of Fame)”에 들러 제임스 본드(James Bond)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다. 중간 역 브리그(Birg)에서는 마치 말 아래의 바닥이 뚫린 듯한 모습을 볼 수 있는 독특하고 아찔한 “스카이라인 워크(Skyline Walk)”와 “스릴 워크(Thrill Walk)”가 있다.

구간 슈테헬베르크 - 쉴트호른
 고도 해발 2,970m
 소요시간 30 분
 요금 스위스 트래블 패스 소지 시,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10. 슈토스(Stoos)

스위스 한복판에 세계 기록을 보유한 기술 혁신이 기다리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가파른 퓨니쿨러가 슈비츠(Schwyz)를 출발해 자동차가 금지된 산악 마을 슈토스로 향한다. 여정 그 자체가 체험이 되어주는데, 승객들은 1,300m 를 올라 자연 천국으로 안내받는다. 슈토스 퓨니쿨러는 경사도 110%(47 도)에 달한다. 놀라운 것은 경사도에 완벽히 반응하도록 설계한 원통 모양의 객차다. 승객들이 언제나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준다. 슈비츠에서 슈토스까지 이어지는 여정은 4 분에서 7 분 사이다. 이 과정에서 슈토스반은 약 744m 를 오르고, 두 개의 다리와 세 개의 터널을 지난다. 1,740m 뒤에는 산악 마을 한복판에 있는 상부 역사에 닿는다. 넓은 범주의 레저 액티비티를 갖춘 자연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휴양 마을인 슈토스는 1,300m 위에 자리해 있는데, 중앙 스위스에 있는 알프스 풍경 속에 안겨 있다. 겨울에는 스키장, 윈터 하이킹 트레일, 스노우슈 트레일이 기쁨을 선사한다.

구간 슈비츠 - 슈토스
 고도 해발 1,300m
 소요시간 4 - 7 분
 요금 스위스 트래블 패스 소지 시, 전 구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자료 협조: 스위스 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